

무주군, ‘안전한 겨울나기’ 총력

제설대책상황실 운영·읍면별 맞춤형 대책 추진

무주군은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지난 11월 군청 내에 제설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오는 3월 15까지 도로 제설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개 읍면 지역별 강설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철저한 사전 대비로 재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제설·재방으로 원활한 교통상황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설 장비와 자재를 수시 점검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주민 행동 요령 등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주요 도로는 국도(위임) 37호선 34km, 지방도 4개 노선 77km, 군도 13개 노선 125km로, ‘선 제설, 후 통행’을 원칙으로 교통 소통 취약 구간과 통제 구간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제설 취약 구간 4개 노선, 교통 두절 예상 지역 6개 노선, 산간마을 고립 예상 지역 3곳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과 장비, 제설 자재 등을 투입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무주군은 제설 인원 137명, 굴삭기와 덤프, 제설기 등 장비 259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군청 임차차량 9대

를 비롯해 읍면 임차차량 12대도 운영 중이다. 이장 등으로 구성된 마을제설 봉사대(86명)는 마을진입로와 산간 도로 제설을 맡고 있다.

무주군이 보유 중인 제설 자재는 모래 470㎥, 친환경 고상 제설제 66톤, 염화칼슘 334톤, 제설소금 1,135톤이다.

권태영 무주군청 건설과장은 “군민과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읍면별 폭설과 한파에 대비하고 있다”라며 “제설 장비 확충, 제설에 최적화된 인력·장비 활용, 빈틈없는 상황 관리,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 유럽 진출 교두보 마련

이탈리아 움베르토 나르디 박사 ‘진안군 홍보대사’ 위촉

진안군이 이탈리아 움베르토 나르디 박사를 진안군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진안군 홍보대사는 이번 임명된 움베르토 나르디 박사가 유일하며, 외

국인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은 유럽 시장 내 진안홍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판로 개척을 이룰 적임자라는 점에서 나르디 박사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



진안군이 이탈리아 움베르토 나르디 박사를 진안군 홍보대사로 공식 위촉했다.

위촉식은 지난 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으며,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정배 진안홍삼한방플러스터사업단장 등 군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홍보대사로 임명된 나르디 박사는 다수 의학 학술대회 수료, 피부치료 신제품 연구, 임상 논문 지도 등 다양한 경력과 함께 유럽 내 학술·산업 분야 네트워크를 폭넓게 보유하고 있다.

특히 그는 최근 K-홍삼 관련 연구 논문을 유럽 의학 학회와 미용의학협회에 발표하며 진안홍삼의 과학적 우수성을 알린 바 있어,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지난 8월에도 나르디 박사는 바티칸 수도원 관계자와 함께 진안군을 방문해 인삼 재배지와 홍삼 가공시설을 둘러보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

이번 위촉은 이러한 협력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진안군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현지 학술·홍보 활동을 체계화하고 해외 판로 확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장기적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형설지공도서관, ‘우수도서관’ 선정

무주형설지공도서관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우수도서관 인증 현판을 전달 받았으며 재정 인센티브 4백만 원도 지원받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위원회는 도내 4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7개 항목·12개 지표에 따라 도서관 서비스, 장서, 예산, 독서문화진흥 우수사례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무주형설지공도서관은 독서문화진흥 우수사례 분야에서 1위에 올라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

전현민 도서관팀장은 “우수도서관 선정이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양서와



알찬 프로그램 등 이용자 중심의 문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자체증식 수정별 수요조사 실시

장수군, 이상기상 대응·고품질 원예작물 안정 생산 위해 공급 확대

장수군은 이상기상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토마토·블루베리 등 주요 원예작물의 안정적 결실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자체증식 수정별 수요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군은 매년 생산·공급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 농가가 겪는 수정 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수군은 2019년 자체 생산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수정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다. 초기 연간 3,500봉군으로 시작한 공급량은 농가 수요 증가에 맞춰 꾸준히 확대해왔다.

군은 2025년 4,000봉군을 공급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4,200봉군까지 공급량을 늘려 보다 안정적인 매개관충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자체증식 수정별은 봉군당 3만 원으로 공급되어 시중가 대비 약 58%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군에서 자체 증식한 수정별은 높은 활력과 뛰어난 꽃가루 수정 능력을 자랑하며, 작물의 결실률과 생산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핵심 역할을 한다.

수정률이 높아진 과일은 당도와 산도가 균형 있게 발달하여 상품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농업현장에서 수정별의 효율적인 활용을 돕기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과 1:1 현장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자체 생산한 수정별 공급은 이러한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자원순환 업무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장수군은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자원순환 정책의 이행력을 높이고 생산적 경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장수군은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실적을 인정받아 최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장수군은 여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실천한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군은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개선을 위해 5명의 환경강사를 양성하고, 100개 마을을 방문해 찾아가는 탄소중립·녹색생활 실천 교육을 운영했다.



이러한 활동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 △폐기물 발생 억제 △회용품 줄이기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 등 여러 분야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군민 참여도가 높아지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증가와 생활폐기물 감량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 주민과 행정팀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평가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읍 지사협, 저소득 아동·청소년에 선물 꾸러미 전달

무주읍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진성·공공위원장 정진화)가 지역 내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몸튼튼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관리가 쉽지 않은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등 6명이 직접 무주읍 내 저소득 가구 11곳을 방문해 꾸러미를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106억원 지급

장수군은 8일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총 6,053농가에 106억여 원 규모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불금 지급은 농업·농촌이 가진 환경 보전, 국토관리, 식량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로,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직불금은 소농직불 2,719농가와 면적직불 3,334농가, 총 4,552ha에 대해 지원되었으며, 소규모 농가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경작하는 농가까지 직불금 유형에 따라 지원을 받았다.

특히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이면서 농촌 거주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을 정액 지급해 소규모 농가의 경영 기반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 구간별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규모가 큰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농가가 더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제도의 형평성과 공익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육 참여 교육생 모집

진안군이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참여 교육생을 다음달 14일까지 모집한다.

군은 농업 경쟁력 향상과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000명 규모, 10개 과정의 집합교육을 편성해 내년 1월 20일부터 2월 6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과정은 수박, 고추, GAP, 병해충 관리 등 지역육성 및 특화 품목 관련 과정과 필수 인증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진안군민·농업인·귀농·귀촌 예정자 누구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접수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QR코드 온라인 접수 △읍·면 농업인상담소 방문 △농업기술센터 방문 등으로 진행해 참여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꾸나가야 합니다